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54호

I 2018년도 한-미 식물검역 정례회의 개최

II 천안 수출포도 뉴질랜드 수출 개시

III GSP 감자옥수수 품종 개발로 종자수출 가시화

IV 연천 단호박 일본 첫 수출 기념식 개최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54호 2018. 9. 21(금)

‘18.8.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61.9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25.4% 800백만불	0.8% 3,783백만불	4.8% 1,605백만불
+ 인삼류, 김치, 딸기 - 채소종자, 백합(화훼류), 장미	+ 음료, 라면, 맥주 - 궤련, 커피조제품, 설탕	+ 참치, 김, 고등어 - 삼치, 넙치, 오징어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b>홍콩</b> 286백만불(14.7%)		인삼류(90%), 맥주(9%) 설탕(△23%), 굴(△1%)
<b>중국</b> 963백만불(12.8%)	▶ COSTCO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6.10~계속) ▶ Great Wall 등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7.14~10.21)	인삼류(62%), 라면(15%) 설탕(△15%), 김(△13%)
<b>ASEAN</b> 1,180백만불(11.5%)	▶ Kofco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5.25~계속)	음료(47%), 참치(6%) 궤련(△28%), 커피조제품(△7%)
<b>미국</b> 692백만불(5.8%)	▶ Amazon 연계 한국식품 온라인 홍보판촉(계속) ▶ 푸드트럭 연계 소비자체험홍보 추진(계속)	김(15%), 음료(2%) 참치(△9%), 소주(△2%)
<b>일본</b> 1,408백만불(2.5%)	▶ YAHOO JAPAN연계 온라인판촉 추진(계속)	참치(10%), 파프리카(9%) 제3맥주(△25%), 전복(△9%)
라면(33%), 김(23%) 커피조제품(△48%), 참치(△4%)	▶ 프랑스 로글레어 연계 장류 판촉(6.14~계속)	<b>EU</b> 402백만불(△5.1%)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8. 31



### - 복숭아(신선)

◇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당도 향상 및 높은 품질 경쟁력으로 동남아 시장 수출은 높은 폭으로 증가

**1,362천불(39.4%)**

▶ 주요 수출국 : 홍콩(927천불, 37.7%), 싱가포르(232, 32.0), 말련(117,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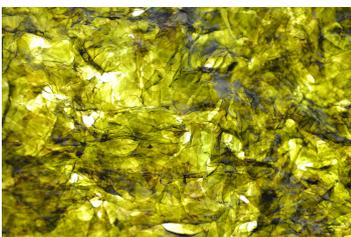
### - 고추장

◇ 매운맛 트렌드 확산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호조세  
특히, 일본 수출은 한류 콘텐츠의 붐과 더불어 떡볶이 등 한식 인기로 따라 고추장 수요 증가



▶ 주요 수출국 : 미국(8,425천불, 12.8%), 일본(2,934, 31.9), 중국(2,361, 22.0)

**23,698천불(15.2%)**



### - 김

◇ 한국산 김 인지도 증가 지속 및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을 통한 판매로 마른 김, 조미 김 수출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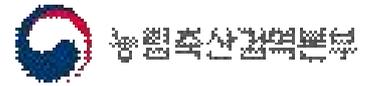
**386,961천불(4.2%)**

▶ 주요 수출국 : 일본(93,332천불, △0.1%), 태국(71,293, 22.3), 미국(63,705, 15.0)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

## 식물검역 이슈



한-미 식물검역 정례회의  
(2018. 8, 미국 비잘리아)

### 2018년도 한-미 식물검역 정례회의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28~30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잘리아에서 미국동식물검역청(APHIS)과 수출입식물 검역현안 협의를 위한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산 배 현지조사 도입 및 박과작물, 밤 등 수출요건 완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미국은 자국산 사과 배의 한국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 추진경과 : 한국과 미국은 '86년부터 매년 식물검역분야 기술협력 및 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식물검역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천안 수출포도 뉴질랜드 수출 개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월4일 천안포도영농법인을 뉴질랜드 수출단지로 지정(승인 21농가 140ha)하여 포도 수출재배농가 현장 교육을 시작으로 과수원 예찰트랩조사, 재배지검역 및 선과검역을 통해 8월8일 성거읍에 소재한 천안포도수출유통센터에서 거봉포도 7톤을 뉴질랜드로 수출했다. 올해 한국산 포도 수출 계획량은 총 1,400톤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동남아, 캐나다 등 전 세계 국가로 수출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 ▶ '17년 포도 수출 실적: 미국(185톤), 캐나다(75), 뉴질랜드(63), 대만(24), 태국(21), 중국(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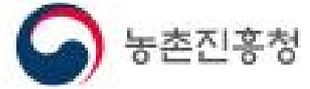
### 올해도 국내 생산한 배 호주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충청도, 강원도, 경기 일부 지역 과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호주농업수자원부와 검역협상을 통해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15년 한국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하여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나 검역본부는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주, 하동, 나주지역 수출단지인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 ▶ '17년 배 수출실적 : 20,745(톤) / 호주(195)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 농진청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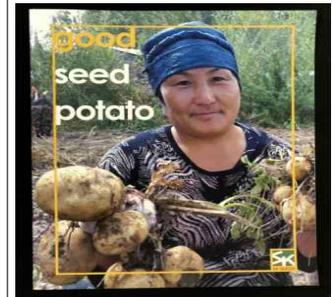


### GSP 감자·옥수수 품종 개발로 종자수출 가시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골든시드프로젝트(GSP\*)의 2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GSP 중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식량종자사업단은 2021년까지 벼와 감자, 옥수수 등 3개 작목을 대상으로 총 2,600만 달러의 종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GSP를 통해 개발한 옥수수 'Mithas(미다스)' 품종이 인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출액이 17만달러로 늘었고 가공용 감자의 씨감자 또한 베트남으로 총 30만달러를 수출해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4.7배 실적을 냈다. 2년차인 올해는 옥수수 50만 달러가 목표임에도 7월말 기준 121.5만달러(옥수수 64만 7천달러, 감자 56만 8천달러)를 수출하면서 이미 목표치를 2.4배가량 초과했다. 더불어 1단계 사업에서 해외 6개 나라, 9곳에 설치한 육종기지에서 우수 품종을 본격 출시하고, 종자 기업들의 해외 홍보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출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식량종자 수출은 농촌진흥청의 품종육성 기술과 민간기업의 마케팅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국가에서 이끌었던 품종 육성과 보급이 국내 종자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 **Golden Seed Project:** '종자 자급을 확대 및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원예·채소(농림부), 수산(해수부), 식량·종축(농진청) 등 5개 사업단으로 운영



▲ 현지 판매상품 및 홍보물  
▼ 단옥수수 품종 'Mithas'



### 연천 단호박 일본 첫 수출 기념식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초 경기도 연천군에서 단호박 생산 농가와 NH농협무역, 연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호박 일본 수출 기념식 및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이 날 수출한 물량은 18톤으로 일본에서 선호하는 크기(무게)인 1.5kg~ 2.5kg에 맞춰 생산한 것이다. 농촌진흥청과 NH농협무역은 지난해부터 단호박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연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수출을 함께 추진해왔다. 신규 수출 유망단지로 지정해 전문가의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병해충 방제, 유통구조 등을 교육해 왔고 선별 세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 조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노동력 절감에도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30농가가 33ha에서 660톤을 생산하여 이 중 28톤을 일본에 수출했으나 올해는 34농가로 늘면서 면적도 41ha로 증가했고 720톤(수출액 8천만 원)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NH농협무역,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유통-마케팅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천군이 단호박 수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